

장성군, 미래의 성장·발전 위한 '새로운 장성' 건설 준비 착착

2022년도 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총 139건 1천40억 원 규모 발굴

장성군이 최근 '2022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열었다. 안건으로 올라온 신규사업들은 앞선 9월에 열린 1차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시책들로, 총 139건 1천40억 원 규모다. ▲정부정책(17건) ▲지역활력(32건) ▲지역협력(32건) ▲기타현안(53건)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먼저, 신성장동력 사업인 국립심뇌혈관센터, 국립아열대자물질증센터 설립에 관한 내년도 추진 방향 수립에 집중했다.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장성의 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청운지하차도 건설과 장성읍하이패스IC 진출입로 개설, 동화JC~장성

물류센터 국지도 연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 교환도 진행됐다.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려시멘트 부지 재개발 모델 구상과 덕성행복마을 조성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시설의 문제를 분야별로 진단하는 디지털트윈사업 등 장성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도 역점을 둔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장성호관광지활성화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 ▲축령산 하늘길 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지역성장전략사업 등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쳤다. 농업분야 시책으로는 ▲장성형 푸드플랜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수 안정 생산 ▲황금색 치유농산물 재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정책사업이 제시돼 활발한 토의가 이어졌다. /유광종 기자

영광, 내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한국판 뉴딜, 주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시책 발굴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준성 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열린 보고회에서는 한국판 뉴딜,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등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시책 도입을 통해 영광군 미래비전 실현 사업에 초점을 두고 102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24시간 콜택시 도입) ▲어르신 돌봄 119, 스마트 돌봄케어 ▲성산공원 에코(ECO)숲 조성 ▲재활용품 스마트 자원순환 보상시스템 구축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시책들도 제시됐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도 민선7기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환경과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군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발굴시책은 ▲스마트시티(U-City)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그린수소 평가시스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대마산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K-종자산업강화 스마트 재종전단지 조성 ▲칠산대학교 스마트복합센터 조성 등 한국판 뉴딜에 대응해 영광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시책이 많이 발굴됐다. /김진 기자

담양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담양군이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4천396톤을 매입한다. 매입물량은 건조벼의 경우 지난해 2천197톤에서 155톤(7.1%) 늘어난 2천352톤, 산물벼의 경우 지난해보다 324톤(18.8%) 늘어난 2천44톤으로 총 4천396톤이다. 산물벼는 지난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성·수북·대전농협DSC(벼 건조저장시설)에서 매입하고 있으며, 건조벼는 내달 4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매입 현장에서의 취식이나 등굣길 등 장을 단위로 참관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마을별로 출하 시간대를 구분해 출하하는 시차제 출하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지역 단체·기관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 최근 나드리노인복지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 계획에 포함된 '8대 영역 48개 세부사업'을 3개 분과로 나눠 점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화순군 제공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12월에 확정되며,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3만 원으로 농가가 수매한 직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 2개 품종이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 외 수매를 막기 위한 품종검정제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매입현장에 손소독제 비치, 출입자 명부 작성, 시차제 출하 유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공공비축미 매입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본격 활동

화순군은 지역 단체·기관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 최근 나드리노인복지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 계획에 포함된 '8대 영역 48개 세부사업'을 3개 분과로 나눠 점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친화도시의 개

념,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경과, 올해부터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 계획을 공유하고 모니터단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상황 조사·점검 ▲고령층의 일상생활 불편 사항과 개선방안 발굴, 제안 ▲고령친화적 지역문화 공감대 형성과 확산 활동을 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인증)을 받았다. 화순군은 '노후가 행복한 세대연대 1번지 화순'을 비전으로 ▲안전과 고령친화 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 편의 환경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의 실행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남효경 기자

나주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영산대교~이창동, 경사면·노봉산 밑 골모실 정비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는 최근 청사 이화실에서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 용역보고회'를 갖고 해당 공모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 도심속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둔다. 신청 대상 지역은 △불량도로(4m 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이 50%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비

율이 50%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 등 2개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선정 시 4년 간 국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영산포 지역 관문인 영산대교에서 이창동으로 이어지는 경사면과 노봉산 밑 골모실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 추진 중인 영산동, 영강동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제외된 이창동 취약지역 거주환경 개선에 따른 영산포 3개동의 균형발전과 주민 거주환경 개선 등 낙후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성택 기자

